

April 10 주의 십자가에 잇대어

• 요한복음 15:1-27, 21:18

우리의 십자가가 주께 잇대어 있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가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여 힘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헌신, 희생과 순교는 주님과 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늙어서 남이 떠 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1:18). “네가 정말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택하지 않은 곳이라도 능히 남에게 이끌려 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다(헨리 나우웬, 《예수의 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계셨습니다(요 14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요 15:5, 7). 제자로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요 15:8).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요 15:12-13).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를 잇댈 때, 우리는 능히 나의 십자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임태한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 앞에 선 자들에게도, 풍랑이 이는 바다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18).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므로 두려움을 뚫고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잇대십시오.

나는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 ① 주님의 십자가에 잇대어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 ②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지고 있습니까?